

도내 학교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시스템 개통

미래교육연구원, 교사 행정업무경감 종합대책 일환
지역별·개별학교 선택 발송 가능도록 편리성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10일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김호민 건축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강연은 지방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건축가는 '2024 제16회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이자 현재 풀리머 건축사무소 대표로, EBS 프로그램 '건축탐구 집'에 출연하며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해 건축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구현 등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건축 사례로 설명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민원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간이 주는 가치를 되새기고, 또 미래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안목을 넓혀 지방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학습과 활동이 조화로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 공문을 시행하면 학교 담당자가 내부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알라미 앱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공통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하면 학교 누리

집에 자동 등록된다. 특히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할 때 전체 학교 또는 지역별, 학교급별, 개별학교 선택 발송이 가능하도록 편리성도 높였다.

장익 원장은 "학교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시스템 개통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가정통신문 일괄등록 사용자 관리를 위한 관리자 지정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김호민 건축가 초청 강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원성)은 10일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김호민 건축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강연은 지방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건축가는 '2024 제16회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이자 현재 풀리머 건축사무소 대표로, EBS 프로그램 '건축탐구 집'에 출연하며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해 건축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구현 등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건축 사례로 설명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민원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간이 주는 가치를 되새기고, 또 미래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안목을 넓혀 지방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학습과 활동이 조화로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0일 호성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외 이웃 돕는 일에 함께 할 것”

서거석 교육감,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쌀·화장지·누룽지 등 격려품 전달, 관계자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10일 호성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호성보육원은 아동상담·진학상담·자립준비 교육·가족관계유지·가족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아동생활 복지시설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사회복지

시설 14곳에 쌀, 화장지, 누룽지, 김 등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존중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이자 가치"라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조리로봇 도입 과정 공개하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조리로봇 도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1대에 8천~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투입로봇의 기준을 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기성과 가격, 세부적인 사양과 관리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협동조리로봇'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협동조리로봇의 도입 단계부터 시설이나 인력 예산 대비 효과를 따져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선정 기준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시범 운영 협의 자리에서 기증받아 시범사업을 할 경우, 기증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전북의 실정에 맞는 '협동조리로봇'을 잘 알아보고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협동조리로봇'이 '튀김로봇' 사업으로 둔갑해 전주 모 중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전북교육청이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42회 전국청소년과학페어에서 '융합과학' 분야 대상을 수상받은 전북과학고(사진 왼쪽)와 '과학토론' 분야 대상을 수상받은 전주기전중.

전북과학교육 우수성 뽐내다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국 청소년과학페어 2개 부문 대상
'융합과학' 전북과학고·'과학토론' 전주기전중 수상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조현정)은 지난 7~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청소년과학페어에서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154개 팀이 참가해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에 전북과학고 김한선·김지은 학생팀은 융합과학 분야에서 타지역 과학고 학생들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또 전주기전중 김현우·송승빈 학생팀도 과학토론 분야 대상을 수상하

며 전북과학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전주효천초와 군산초가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전주기전중 송인우 교사는 "평소에 끝없는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K-과학을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펼칠길 염원한다"고 전했다.

분별주 부장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지원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데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시작 알렸다

전북대, 매칭데이 행사 개최... '중기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사업' 선정 따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0일 진수당 일원에서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연구인력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2027년까지 36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과 맞춤형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R&D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행사는 중소기업과 연구인력 매칭을 위한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 지역 연구소를 비롯해 4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사업 발대식, 기업과 연구인력, 유망 기관 간 간담회, 취업 트렌드 특강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연구인력 매칭 우수 중소기업으로 (주)비너스, 대우전자부품, (주)올리스, (주)오디텍 등이 사례 발표를 하고, 진수당 로비 등에서는 기업 상담 부스와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전북대 연구인력혁신센터(센터장 국경수)는 이번 행사 외에도 향후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여 명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연구인력

들이 최대 4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연구인력의 기업 진출을 위해 인턴 기간 동안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며, 이 중 40개의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해 프로젝트당 1,200만 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경수 센터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 및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채용의 연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대학과 기업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청렴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전북자치도교육청, 반부패 청렴 시책 효과성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열림동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청렴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8월 위촉한 청렴 퍼실리테이터의 첫 번째 활동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워크숍은 오전에는 분청 장학관·사무관 대상으로, 오후에는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장학사·주무관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워크숍은 △구성원이 바라는 조직문화 이슈 토론 △조직문화개선 핵심 이슈 선정 △핵심 이슈별 개선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행계획 수립 등 자연스러운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도록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청렴 인식 개선 및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관(부서)별 수평적 의사결정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성과발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에 참여한 12개교, 48명의 학생이 참여해 각 팀별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탐방 지역의 교육 및 문화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학생들은 탐방 중 겪은 도전과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및 학업 계획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공유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정한 주제로 해외에서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예비창업자 기술 확장·융합 기반 마련

전주대 창업지원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9일 본교에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삼남)과 기술창업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초기창업단계 및 예비창업자들이 기술을 확장하고 응용하며,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적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내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남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기술 기반의 창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삼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생명 분야 기술을 활용한 창업 촉진으로 지



역 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농생명분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역 농생명 관련 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분야 산업 육성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진 연구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아외 진로 취업상담 페스타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0일 2024학년도 2학기 1회차 아외 진로·취업 상담 페스타(FESTA)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입사지원서 컨설팅, 모의면접, 알선 채용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2024년 청년고용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내 로터리에 앞에서 간식까지 제공하며 상황에 맞춰 진행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내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한 미래를 잘 준비해 취업 성공하기까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